

축산업 집약화에 눈돌리는 중국

◇ 취재 / 김용화부장



13억 중국인들이 소비하는 축산물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물음에 좁은 국토, 척박한 축산 자원을 바탕으로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우리로서는 마땅히 대답 이전에 가슴설레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

금번 중국 VIV2000 국제집약화 축목전람회를 직접 참관하면서 거대 중국이 이제 조방적인 축산업의 형태를 벗어나 집약적인 축산업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피력

하고 싶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북경 국제전시장(中國國際展覽中心)에서 개막된 중국 VIV2000 축산박람회는 개관 첫날부터 초만원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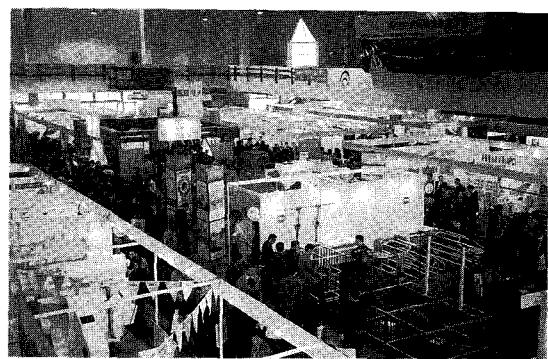
과거 수년 전부터 중국도 국내 축산전시회는 여러 차례 개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00년 들어 축산업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산업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예고라도 하듯 세계 골지의 전시회 전문기관인 네덜란드 VIV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축산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아시아에서는 훌수년도 3월에 태국 방콕에서, 짹수 해에는 중국 북경에서 국제 축산박람회가 개최되게 되었다. 이번 북경 VIV2000의 총 전시 규모는 7,400m²로 순수 전시 면적은 3,600m²로 축산업의 발전에 비해 상당히 큰 전시장을 운영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중국 천진에
서워 중국 시장은
시작개점 까지
김형석 사장이
시도하는
직원들에
케이지
대해 설명(가운데)
주립 홍창
유럽
보일공업
케이지
중국
체인인들에
 대해 설명(가운데)

참가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덴마크 등 20개국에서 204개 업체가 참가하여 축산 시설장비, 사료, 첨가제, 약품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해외 업체는 110개사로 약 55%를 점하고 있어 선진 축산국들이 중국 시장에 거는 기대가 높았음을 암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보일공업(착유기, 케이지), (주)건지(육계, 종계급이기) 등이 전시회에 기자재를 출품하여 높은 관심을 끌었다.

전시장은 3개 공간으로 나누어져 다소 산만 사고 거친 분위기였으며, 아직 국제 수준의 박람회 개최 준비에는 거리감이 있었고, 참관객이 봄비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역의 말에 의하



△중국 축산전시회는 아직까지도 실물보다 판넬위주의 전시회 차원에 머물러 있는데, 곳곳에 실물을 출품하여 홍보하는 업체도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을 엿보게 하였다.

면 전시회장 주변 잡상인들이 전시장에서 무료로 나누어 주는 비닐봉투와 포장마차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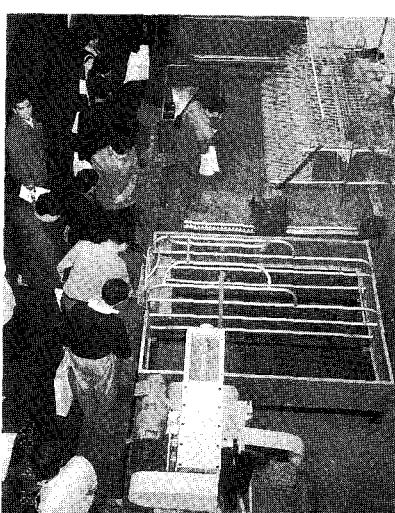
팜프렛을 수집
하러 몰려든
사람을 제외하
면 축산업과
관련하여 상담
때문에 방문한
자는 좀 적을
것이란 설명을
듣고 중국 축
산업의 현실을

다소 이해할 수가 있었다.

어쨌든 중국은 이제 시장경제 초기보다 7배의 육류소비를 보이고 있는 세계 최대의 축산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여타 나라와 마찬가지로 소자본으로 출발이 가능한 양계업은 풍부한 인적·사료자원을 배경으로 더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면서 이번 중국 VIV2000 축산박람회는 그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건지
파충류
사장도
중국에
국장을
세우고
있다.
중소
가축
시설자동화
중견업체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전시회에
출품된 산계 A형 케이지, 돼지
보정등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는 중국
축산업자들